

2025년 6월 22일

만남의 예배, 복음의 식탁

누가복음 24:28-35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한 마디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웃과의 진정한 만남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요 4:23-24)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이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내 갈망인가?”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가, 또 그래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던길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떠들썩해져 있었습니다 (18-24 절). 하지만 아직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항간에 소문에는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아직 그 소식이 자기들에게는 먼 얘기처럼 들릴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향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온천이라고 하면, 치유와 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온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가 언제 온천을 하러 가나요? 뭔가 좀 쉼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할 때 가지요. 이들도 아마 지난 몇 일 마음이 많이 괴로웠었던거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천이 있는 엠마오로 향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도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한 사람은 **클레오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닐까로 보통 얘기합니다. 다른 한 명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추측으로 가득할

뿐이지요. 클레오바의 아내일수도 있고, 친구일수도 있고, 무명의 제자일수도 있고, 혹은 이 복음서를 작성한 누가 본인일수도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심난하고, 두렵고, 지친 상태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 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시고, 심지어 대화도 나누는데 어떻게 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도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멀게 느껴지고, 신앙이 메마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언제 변화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32 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진짜 변화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뜨여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그 일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30-31 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식사를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떡을 떼다’가 영어로는 **Breaking the bread** 인데, 이 표현은 보통 성찬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요. 누가복음 22 장 19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초대 교회에서도 성찬을 한다는 의미로 ‘떡을 떼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46 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두 성찬의 장면입니다.

앞서 예배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배에는 여러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놓고 보면 - 주보에도 나와있듯이 - 예배로의 부름, 찬양, 기도, 말씀, 성찬식, 축복 등등의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고백시간, 헌금 시간, 성가대 등등 다른 예배 순서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예배 구성 요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데 있어서 빠질수 없는 예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찬식이지요.**

대부분의 개신교 예배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결정하는데도 보통은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보지, 그 교회에 성찬식이 매주 있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능력의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히 4:12).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는 말씀가지고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임재를 만지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이뤄지는 영의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윌리엄 윌리몬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늘 말씀과 식탁이 함께 있는 공동체였다. 말씀이 마음을 녹이고, 식탁이 영혼을 살린다.”

말씀은 뜨거운 가슴을 만들어주고, 성찬은 눈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성찬을 1년에 몇 번만 드립니다. 대개 한국교회는 성찬식을 일년에 3-4 번 정도 드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성찬식을 더 자주 드리면 좋겠다고 대답은 하겠지만, 매주 그렇게 하겠냐고 물어보면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특별히, 예배 인원이 많은 교회는 더더욱 그럴겁니다. 성만찬을 준비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무엇보다 성찬식을 하게 되면 예배 시간이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 장소에서 예배를 여러번 드려야 하는 교회는 더더욱 성찬식을 자주 갖는 것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찬식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없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찬식을 매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큼 공감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는, 물론 성찬식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 굳이 성찬식을 매주, 더군다나, 예배 때마다 드리는가에 대해서 납득이 안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식을 가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가져야 하는 **당위성**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집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눅 **22:19**)

바울도 성만찬을 하는 것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고전 **11:26**)고 얘기하면서 성찬식이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떡을 떼는 일” 즉 “성찬”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42, 46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번도 아니고, 날마다 모일때마다 성찬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초대교회 신앙에 중요한 요소였는지는 초대 기독교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다케(**Didache**) 라는 기독교 문서가 있습니다. 대략 서기 50 년에서 120 년 사이에 작성된 문서로 보는데, 기독교인 행동강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성찬예식과 관련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역시 성찬식이 기독교 초기부터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던 것 중에 하나가 성찬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실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교부 터툴리안은 그의 변증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죽여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말한다. ... 이는 터무니없는 허구이며, 아무 증거도 없다.”

여기서 **요지는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태동될때부터 시행되고 강조되어온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일때마다 성찬식을 가지는 것은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 전통을 고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진수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초기부터 이렇게 성찬식에 마음을 쏟았는가? 왜 그들은 모일때마다 성찬식을 했는가?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성찬식을 할 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경험을 했던 것처럼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매일 매일 지치고 영적으로 지치고 고단한 날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먹고, 또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것보다 더 우리에게 힘이되는게 뭐가 있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지않아요.**

윌리몬 목사님은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식탁(성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이 여전히 살아 계신다’고 말해주는 복음의 식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식탁은 복음의 식탁이다. 누군가는 성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만질수 있는 복음이다.”** 혹은 이렇게도 말할수 있습니다. **“성찬은 맛볼수 있는 복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빵과 포도주에 불과할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님의 식탁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빵과 포도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끼고 있는 반지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금속붙이에 불과하고, 이것이 팔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금전적 가치로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저와 제 아내에게는 이 반지가 너무나도 귀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지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 빵과 포도주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냄새맡고, 만지고,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만질수 있고, 또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지요.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파마다 예수님께서 성찬에 어떻게 임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이해와 설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 전통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격적으로, 신비롭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보다는,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 이 성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그분이 날 위해 찢기신 그 살이 나를 치유하고, 그분이 나를 - 나 같은 죄인을 - 살리기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Amazing Grace** 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은 복음의 식탁입니다. 복음을 만질수 있는 식탁입니다. 복음을 맛볼수 있는 식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식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통로 **Means of Grace**”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될 수 있는한 성찬을 자주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찬과 관련한 또 한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이 단지 나와 주님 사이의 만남으로만 끝나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이뤄지는 곳에는 늘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만남도 이뤄집니다. 포도알 한 알 한 알들이 모여서 포도송이가 되고, 포도송이들이 함께 모여 한 잔의 포도주가 되듯이, 주님의 식탁에 모인 우리의 모임도 예수님의 성령으로 하나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의 식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내 옆에 사람도 이 복음의 식탁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이 식탁으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이 식탁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식탁에서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과의 만남도 이뤄집니다. 공동체와의 연합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날 엠마오에서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단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수형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에게만 임재하신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제자들이 눈을 뜨고 이제 드디어 주님을 알아본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이상 엠마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바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의 만남은 우리를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을 진정 만났던 사람들은 옛 모습, 옛 장소,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자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자 그의 발걸음은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자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이 바뀝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리고 식탁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눌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난 주님을 남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낙심과 절망은 주님과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희망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과과의 만남은 새로운 사명으로 불리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찬 가운데 새로운 파송이 일어나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치고, 마음이 무거운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떡을 떼실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진정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명이 생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치고 낙심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곧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몸과 피를 먹을 때에 이 식탁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만지고, 맛보는,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한 복음의 식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닫혔던 눈이 뜨여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간증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더 주님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가 매주,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또 복음의 식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낙심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로 다시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옛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만난 그 은혜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말씀과 성찬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

또 성령 안에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